

## 『KYOKO』 번역판으로 본 번역의 누락과 생략 소고

호사카 유우지

(세종대)

## 1. 머리말

일본 현대 소설의 오역 유형으로서 나는 단순 오역, 어학적 오역, 독해상의 오역, 문화적인 의미 파악 부족에 의한 오역,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오역 등을 이미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가 있다.<sup>1)</sup>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유형을 편의상 나는 ‘기타’로서 분류하여 그 대표적인 예로서 ‘번역의 누락’을 지적했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기타’로 분류한 ‘번역의 누락’, 그리고 ‘번역의 생략’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한 텍스트는 『KYOKO』(村上龍 著, 集英社文庫, 1998. 12)와 그 한국어 번역판이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작가가 일본에서 여러차례 저명한 문학상을 받았고, 작품세계 또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일 공히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는 점과 일본과 한국에서 비교적 많이 읽히는 대중적인 작품이면서도 가볍지 않아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는 점, 그리고 역자가 한국 내에서 일본소설 역자로

1) 拙文, “일본 현대소설의 오역사례”, 『번역학 연구』(제2권 2호, 2001. 가을), pp.145-166.

2) 상계논문, pp.162-163.

서 상당부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판 출판사와 역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 2. 본론

### 2.1. 『KYOKO』 한국어판에서 본 ‘번역의 누락(생략)’ 사례의 양

이하에 나오는 사례는 『KYOKO』 원문 216페이지(서장—제13장, 후기) 중 반정도의 106페이지(서정—제6장)를 검토한 결과 ‘번역의 누락(생략)’의 사례이다. 책 전체의 약 2분의 1을 검토한 결과 30군데에 번역의 누락이 있었다. 그러므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책 전체에  $30 \times 2 = 60$ 군데 정도 ‘번역의 누락’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역시 단순 계산으로 106페이지/30군데 = 3.53페이지/1군데가 되므로 3~4페이지에 1군데 정도의 비율로 ‘번역의 누락’된 부분이나 ‘번역의 생략’이 있을 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양적으로 누락이 적다 많다는 허용범위 기준이 번역학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누락’과 ‘번역의 생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논하기로 한다.

### 2.2. ‘번역의 누락과 생략’의 원인과 사례

‘번역의 누락과 생략’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 1) 역자가 말의 뜻을 몰라 번역을 할 수 없어 잘못 옮기기보다는 아예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경우,
- 2) 역자가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 3) 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락,
- 4) 역자가 생략이 아니라 변환(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번역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문장을

---

3) 상계논문, p.162.

살펴 볼 때, 위의 네 가지 원인 중 어느 원인으로 번역을 누락했거나 생략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먼저 위의 분류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역자가 말의 뜻을 몰라 번역을 할 수 없어 잘못 옮기기보다는 아예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외래어를 옮길 때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사례 1

(원문) ダンススタジオのレセプションの女は、一。(KYOKO, p.30)

(번역) 댄스 스튜디오의 [… 생략…] 여자는…

#### \* 사례 2

(원문) ダンススタジオのレセプションのような場所に來たのは初めて

だったが、…。(KYOKO, p.31)

(번역) 댄스 스튜디오 [… 생략…]에 들어와 보기는 평생 처음이었다.

사례 1, 사례 2를 보면 <レセプション>이라는 말을 두 번 연속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즉 번역자는 <レセプション>이라는 어휘의 번역을 피했다. 그 이유로서, 위의 두 군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번역된 부분이 있어 누락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사례 3

(원문) 兩手の爪を細く長く伸ばして綠色に塗っているレセプションニストは、首を振って、B・Jに聞いてみたら、と廊下の奥を指差した。(KYOKO, p.31)

(번역) 길게 기른 손톱에 녹색 매니큐어 칠을 한 그 여자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B·J에게 물어봐, 하고 복도 안쪽을 가리켰다.

위의 사례 3을 보면 원문의 <レセプションニスト>를 번역문에서는 <그 여자>라고 번역했다. 이 부분은 누락이라기보다는 <レセプションニスト>라는 말을 바로 번역하지 않고 <그 여자>라고 무난한 말로 바꾼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번역자가 <レセプション>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랐으리라고 추측되며, 이로 인한 ‘번역의 누락’, ‘적당히 번역하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レセプション>이란 말은 ‘수령, 수리, 응접, 접대, 평판, 환영회 피로연, ...’ 등 많은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レセプション리스트>란 ‘접수계원, 접대원, 접수 담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례 1의 <レセプションの女>란 ‘접수 담당 여직원’이라는 뜻이고, 사례 2의 <レセプションのような場所>는 ‘접수장소 같은 곳’을 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ダンススタジオのレセプションの女>를 ‘댄스 스튜디오의 여자’로 역자는 번역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치가 않다. 결국 <レセプション>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는 데 태만했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고, 적당히 번역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생략이나 누락이 아니지만 외래어를 적당히 번역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서 언급하고자 한다.

(원문) その日の散歩はホスピスの向かいの建物のまわりを一周するだけだった。(KYOKO, p.76)

(번역) 그 날의 산책은 병원 건너편의 건물 주변을 일주하는 것이었다.

이 예처럼 번역판은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무조건 <병원>으로 옮겼다. 106페이지까지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병원>으로 옮긴 예는 위의 예도 포함해서 8군데 있다. <호스피스>란 ‘임종이 가까운 환자를 수용하여 의료적이고 정신적인 원조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병원이 아니다. 그러나 역자는 원래의 뜻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하고 원래의 뉘앙스를 전달할 수 없는 <병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원작을 읽어 나가면 <호스피스>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가망이 없는 에이즈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독자도 알게 된다. 결론으로 이러한 경우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린 번역어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호스피스>를 <에이즈환자 보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시설>, 혹은 <시설>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호스피스>를 <호스피스>로 하고 (주)를 달아줄 수도 있다. 아무튼 보다 적절한 번역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역자가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

## a) 나열된 비슷한 말들 중, 하나를 생략한다

번역의 버릇은 역자마다 다르다. 이 책의 역자의 경우 비슷한 말이 나열되면 그 중 하나를 생략하여 번역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사례 4

(원문) ジャンキーがぐんと減って、ストリートガールも減って、  
 たったそのくらいのことで犯罪っていうのは減るんだよ。

(KYOKO, p.19)

(번역) 마약 중독자가 줄어들자 [ … 생략 … ] 그만큼 범죄자도 줄어든 것이다.

(논점) <ストリートガール>는 <거리의 창녀>, <거리에서 호객하는 매춘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ジャンキーがぐんと減って、ストリートガールも減って>를 번역할 때, <마약 중독자가 크게 줄어들고 거리의 창녀도 줄어들으면>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번역문이 좋아질 것이다.

## \* 사례 5

(원문) 七、八人の生徒が汗を床にまき散らしながら、からだを反らしたりピョンピョン跳んだりしている。(KYOKO, p.32)

(번역) 칠팔 명의 학생들이 마룻바닥에 땀을 뿌리면서 [ … 생략 … ] 폴짝폴짝 뛰어오르고 있었다.

(논점) <からだを反らしたり>를 번역하면 <몸을 뒤로 젖히기도 하고>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からだを反らしたりピョンピョン跳んだりしている>부분을 번역하면 <몸을 뒤로 젖히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도 하고 있었다>정도가 된다. 이렇게 완벽히 번역하면 그 장면이 선명해진다. 즉 한 부분의 번역을 생략할 필요성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 \* 사례 6

(원문) 車を持っているダチとなると、どうしてもニュージャージーとかブルックリンとかクイーンズに住んでいる奴ということ

になる。(KYOKO, p.61)

(번역) 차를 가진 친구들은 한결같이 뉴저지 아니면 [ … 생략 … ] 퀸스에 살고 있다.

(해설) <ブルックリン>은 지명이니 <부루클린>이라고 그대로 번역해 놓아야 한다. 이 지명을 생략해 버리면 그 지명을 써 놓은 것으로 작가가 의도한 내용을 다 나타냈다고 할 수가 없다.

(종합) 사례 4, 사례 5, 그리고 사례 6의 원문에는 비슷한 것이 나열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 4의 경우는 줄어드는 범죄의 예이고, 사례 5의 경우는 댄스 동작의 예이며, 사례 6의 경우는 미국의 지명의 예이다. 그런데 역자는 이러한 예들을 하나씩 생략했다. 이것이 고의적인 생략인지에 대한 여부는 역자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처럼 비슷한 예가 두 세 개 나열될 때 하나를 빼뜨리는 현상은 고의든 부주의든 간에 역자의 버릇 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사례 4에서는 <ストリートガールも減って>라는 부분이 누락되었다. 이 뜻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거리의 창녀도 줄어들고>라는 뜻인데 역자는 <ストリートガール>라는 말의 뜻을 몰랐던 것일까?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ジャンキー>를 정확히 <마약 중독자>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 보통 그 말보다 많이 쓰여지고 있는 <ストリートガール>의 뜻을 몰랐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즉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빼뜨리지 않고 제대로 번역하면 번역문이 훨씬 선명해지고 구체성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생략은 원작의 문학성을 심하게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 b) 복잡한 문장을 생략한다

역자는 복잡한 문장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극히 단순화시켜 버리는 버릇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사례 7

(원문) ブルネーロとかブリネーロとかそんな名前の血みたいな色をしたワインを飲みながらね、そういうことが映像の組み合わせになって、もうこれ以上はないっていうような幸福な映畫のように頭に浮かんできたんだよ。(KYOKO, p.16)

(번역) 블루 넬로인지 브리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핏빛 와인을 마시는 [… 생략…] 그런 영화 같은 행복한 장면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이다.

사례 7의 원문은 복잡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역자는 이 복잡한 문장을 ‘번역의 생략’으로 단순화시켰다. 즉 <そういうことが映像の組み合せになって、もうこれ以上はないっていうような>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단순화해 버렸다. 그 결과, ‘영상이 짜여진다’라든가 ‘더 없는 행복’이라는 뉘앙스가 번역문에서 빠져 버렸다.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예) 블루 넬로인지 브리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핏빛 와인을 마시면서 말이야, 그런 것들이 짜여진 영상이 되어 더 없는 행복한 영화 같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야. (필자)

c) 고의적인 생략의 예—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 번역을 생략한 예  
번역이 생략되는 경우를 분류할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 번역을 생략>했다고 보여지는 사례이다. 여기서 미묘한 단어란 원문의 뜻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선명한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말한다. 이러한 단어를 생략하면 원문의 대략적인 뜻은 전달되지만 원문이 갖는 구체성, 선명성이 생략되어 버린다. 나아가서 원문의 깊이라든가 문학적성까지 많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 사례 8

(원문) それでちょっと氣になって、住所は間違っていないかい?と聞いた。(KYOKO, p.15)

(번역) [… 생략…] 주소가 틀리지는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논점) <それでちょっと氣になって>는 <그래서 조금 마음에 걸려>라는 뜻이다. 이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인해 원문이 갖고 있는 심리묘사를 생략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번역의 생략이 당연히 원문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 사례 9

(원문) オレは少し迷ったがマジソン・スクエアを通り、ガーデンか

ら三つ東へ奥まった通りにある古い建物をキョウコに見せてやることにした。(KYOKO, pp.35-36)

(번역)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디슨 스퀘어를 지나 가든에서 세 블록 동쪽에 [ … 생략 … ] 위치한 오래된 건물을 교코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논점) 번역이 생략된 <奥まった通り>는 <골목길>이라든가 <뒷길>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말을 생략함으로 인해 <오래된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ガーデンから三つ東へ奥まった通りにある古い建物>는 <가든에서 세 블록 동쪽에 있는 골목길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정도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 사례 10

(원문) 出発点として、その結論を受け入れないことには、オレは生きていけなかった。(KYOKO, pp.37-38)

(번역) [ … 생략 … ]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

(논점) <出発点として>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출발하기 위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번역을 생략함으로 내포된 뜻까지 생략되어 버렸다.

\* 사례 11

(원문) シラフでも意識が薄れているアル中のペルー人の老人までが顔を起こして、警察という言葉に反応した。(KYOKO, p.51)

(번역) [ … 생략 … ] 의식이 반쯤은 가버린 알콜 중독 [ … 생략 … ] 노인조차 얼굴을 들고 경찰이라는 말에 반응을 보였다.

(논점) <シラフ>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노인이 <페루인>이라는 번역을 생략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본문의 다른 부분에 이 술집이 ‘페루인이 모이는 술집’이라고 나와 있으나 반드시 페루인만이 술집 안에 있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알콜 중독 노인이 페루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번역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이미 의식이 흐려진 알콜 중독자인 페루 노인> 정도로 번역해야 그 장면의 묘사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 \* 사례 12

(원문) しかしホスピスの部屋もサイトメガロウィルスの日和見感染から自由であるわけがないし、…。 (KYOKO, p.72)

(번역) 그러나 병원 안이라 해서 사이트메갈로 바이러스에 [ … 생략 … ] 감염되지 않으란 법은 없다.

(논점) 일어로 ‘日和見主義’는 ‘기회주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日和見感染>이란 <기회만 있으면 감염시킨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는 이러한 뉘앙스를 되도록 살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병원 안이라 해서 기회만 있으면 침투하려는 사이트메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란 법은 없다> 정도로 번역해야 한다.

## \* 사례 13

(원문) そのうちの14本は既に使われ使用者の亡骸と共に柩に入れられた。 (KYOKO, p.76)

(번역) 그중 열네 개는 사용자 [ … 생략 … ]와 함께 묘지에 묻혔다.

(논점) 여기서 <亡骸>는 <시체>를 뜻한다. 그리고 번역문에서의 <사용자>는 ‘죽은 사용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되도록 원문에 있는 <亡骸>라는 부분을 살려 <사용자가 죽으면> 정도의 말을 넣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은 <그중 열네 개는 사용자가 죽으면 함께 묘지에 묻혔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 \* 사례 14

(원문) そう聞くと、ホセはさらに激しく首を振り、二人から逃れようとするかのように身を固くして私の腕を強く攔んだ。 (KYOKO, p.80)

(번역) 호세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두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 … 생략 … ] 강하게 내 팔을 부여잡았다.

(논점) 여기서 <身を固くして>는 사람의 접근이라든가 폭행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몸짓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호세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두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내 팔을 부여잡았다> 정도로 번역해야 보다 선명한 이미지가 전달된다.

\* 사례 15

(원문) ホセはさまざまなサイズのプライベートな寫眞から自分だけを小さく切り抜き、それをていねいにダンス雑誌の切り抜きページの上から張り付けている。(KYOKO, p.85)

(번역) 호세는 다양한 사이즈의 자기 사진을 얼굴만 잘라내서 매우 정성스럽게 댄스 잡지의 [ … 생략 … ] 페이지 위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논점) 여기서 <切り抜き>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기사라든가 사진을 말한다. 이 말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문은 호세가 자신의 사진을 댄스 잡지에 직접 붙여놓았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상황묘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오역도 있다. 원문의 <プライベートな寫眞から自分だけを小さく切り抜き> 부분을 <자기 사진을 얼굴만 잘라내서>라고 번역했으나 정확히는 <사적인 사진에서 자기 모습만을 작게 잘라내서>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오역과 생략이 다 들어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은 <호세는 다양한 사이즈의 사적인 사진에서 자기 모습만을 잘라내서 그것을 매우 정성스럽게 댄스 잡지에서 오려낸 페이지 위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정도로 해야한다.

\* 사례 16

(원문) (전략) 煙草を吸いながら何十枚という胸部のレントゲン寫眞をチェックしている。(KYOKO, p.94)

(번역) (전략) 담배를 피우면서 수십 장에 달하는 [ … 생략 … ] 윈트겐 사진을 체크하고 있다.

(논점) 원문에는 <흉부(胸部)의 윈트겐 사진>이라고 구체적인 신체부위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서는 <윈트겐 사진>이라고만 기재되었다. 구체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결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 사례 17

(원문) 微笑みかけられると、その逆で、異常にうれしくなってしまうのだ。(KYOKO, p.103)

(번역) 그 반대로 미소를 대하면 [ … 생략 … ]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논점) 원문은 <異常にうれしくなってしまう>라고 나와 있다. 번역문에서는 <異常に>에 해당되는 부분의 번역을 생략했다. <異常に>의 기본형인 ‘異常だ’는 원래 ‘이상하다’, ‘보통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うれしい(기쁘다, 기분이 좋다)’라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는 뜻을 살려서 <異常にうれしくなってしまうのだ>를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정도로 번역해야 원문의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

\* 사례 18

(원문) ダンス雑誌の束、誰が描いたのかわからない下手くそな油繪、(후략)。 (KYOKO, p.104)

(번역) 댄스 잡지[... 생략...], 누가 그렸는지 모를 형편없는 유화, (후략).

(논점) 번역문은 <束>라는 말의 번역을 생략했다. ‘束’는 원래 ‘다발’, ‘단’, ‘묶치’, ‘묶음’ 등의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문의 <ダンス雑誌の束>는 <댄스 잡지>가 아니라 <댄스 잡지 한 묶음> 정도로 번역해야 정확한 이미지가 전달된다. 단순히 <댄스 잡지>로 하면 잡지 한 권이라는 이미지 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 사례 19

(원문) ほら見ろ、このおじさんの言うことをよく聞くんだぜ、(후략)。 (KYOKO, p.94)

(번역) [... 생략...] 이 어르신 말을 잘 들으라는 식으로 (후략).

(논점) <ほら見ろ>는 <이 봐(요)>라는 뜻인데, 이 말을 생략할 필요가 없었다.

\* 사례 20

(원문) ニュージャーニーの方だったと思ったが、確かではないのでわたしは少し離れて黙っていた。(KYOKO, p.105)

(번역) 뉴저지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 생략...] 입을 다물고 있었다.

(논점) 원문의 <少し離れて>를 생략했는데 이것은 <조금 떨어져서> 정도의 번역이 가능하다.

\* 사례 21

(원문) ヌメロ・シンコ、

(5番の部屋の患者が、苦しんでいるぞ) (KYOKO, p.92)

(번역) 누메로 싱코(5번 방[ ... 생략 ... ])

(논점) 역자는 <5番の部屋の患者が、苦しんでいるぞ>를 <5번 방>으로 생략하고 번역했다. 역자의 버릇은 문맥상 생략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되도록 번역을 생략하는데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번역 태도는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5번 방 환자가 괴로워하고 있네> 정도가 된다.

d) 해석하기에 간단한 단어에 대한 번역 생략

해석하는데 쉬운 단어가 생략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와 같은 예는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사례 22

(원문) ロビーにはサイ・ヤング老人がいてメキシコのアニメをテレビで見ていた。(KYOKO, p.81)

(번역) 로비에에는 사이 영 할아버지가 멕시코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 ... 생략 ... ] 보고 있었다.

(논점) <テレビ>는 <T.V.로>로 번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역자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아도 앞뒤의 상황에서 그것을 독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여진다. 즉, ‘사이 영 할아버지’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는 장소가 ‘로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아버지는 ‘T.V.로’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독자가 상상할 것이라고 역자는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テレビ>를 <T.V.로>로 번역하는 일을 생략했다. 그러나 번역을 생략하면서 그 부분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 간단한 단어의 번역을 이런 식으로 생략하는 것은 번역에 대한 태만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문장 전체가 누락되는 경우

문장 전체가 누락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앞뒤의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작자가 의도한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부주의로 인한

누락이 아닌가 보여지는 예가 많다. 고의적으로 생략했다는 의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주의에 의한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나가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 사례 23

(원문) 無謀とか實行型とかそんなことじゃない。エイズ患者になっていってありがとうという気持ちを伝えることはできる、彼女はきっとそう考えている。キョウコは、不幸というイメージを恐れない。(KYOKO, p.66)

(번역) 무모하다거나 실천력이 있다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다. [… 누락…] 교코는 불행이라는 이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락부분 번역) 호세가 에이즈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다. 그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

\* 사례 24

(원문) ラルフは、良い人だと思った。ホセに一人で会いに行く勇氣はなかった。それにしても、英語での會話がこれほど疲れるものだとは知らなかった。(KYOKO, p.72)

(번역) 랄프는 좋은 사람이다. [… 누락…]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도 피곤한 일일 줄은 몰랐다.

(누락부분 번역) 혼자서 호세를 만나러 갈 용기는 없었다. (필자)

\* 사례 25

(원문) 「ねえ、君らはボクのダンスのファンなんじゃないか?」次に英語でホセは聞いた。その問いかけに、驚いたことにキョウコは少し躊躇しながらうなずいたのだった。「わたしの名前はキョウコ、あなたは憶えてないの?」(KYOKO, p.83)

(번역) 「그런데 당신들은 나의 댄스 팬인가?」 [… 누락…]

(누락부분 번역) 호세는 그 다음에 영어로 물었다. 그 물음에 놀랍게도 교코는 약간 주저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저의 이름은 교코예요, 당신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필자)

\* 사례 26

(원문) これはダメかも知れないな、と思うと涙が出そうになって、  
わたしは急いでドアを閉めた。 (KYOKO, p.105)

(번역) [ … 누락 … ]

(누락부분 번역) 이 상태로는 가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필자)

\* 사례 27

(원문) 「(전략) ああ、オレはこんなすばらしい話を聞いたことがないよ、  
本當にすばらしい。」 (KYOKO, p.94)

(번역) 「(전략) 아, 난 여태 이렇게 멋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 …  
누락 … ]」

(누락부분 번역) 정말로 멋지네. (필자)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락된 문장자체가 번역  
하기에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자의 부주의로 인해 누락되었다고도  
보여지는 예가 많다. 그러나 사례14와 같은 경우는 두 문장이나 누락되었다. 누  
락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문장 전체가 누락되는 경우 원문의 흐름이 끊어지  
게 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독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 결국 번역의 누  
락은 번역작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부주의로 인해 번역자는 작품의  
가치와 번역자로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4) 생략인가 변환(翻換)인가

번역의 누락이라든가 생략은 잘못된 일이지만 원문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  
해 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번역어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변환’ 행위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서 생각하고자 한다.

\* 사례 28

(원문) そういう性格は友だちを失くすぞ、と小學校の頃から何度言  
われたかわからない。 (KYOKO, p.99)

(번역) 그러다간 [ … 생략 … ]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초등  
학생 시절부터 [ … 생략 … ] 들어왔다.

(논점) 원문의 <そういう性格は>는 직역하면 <그런 성격은>식으로 된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 부분을 <그러다가는>으로 번역하여 <性格>이라는 단어를 생략했다. 원문의 뜻과 말을 살리면서 번역하면 이 부분은 <그러한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된다. 번역문은 <그러한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이라고 자세히 번역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러다가는>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것을 생략이 아니라 한국 문장에 맞게 물이 흐르듯이 변환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변환’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환’을 많이 쓸 경우, 역자는 반드시 ‘역자의 말’ 등에서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KYOKO』의 한국어 번역본 『교코』 속에 실린 ‘역자 후기’속에는 번역에 대한 역자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역자들은 어떤 입장,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변환’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원문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환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또 다른 생략이 있다. <何度>라는 말은 여기서 <몇 번이나>라는 뜻이다. 이것을 생략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 \* 사례 29

(원문) 「彼らはボクのダンスのファンなのかも知れない、(후략)。」  
(KYOKO, p.82)

(번역) 「저 사람들은 나의 [ … 생략 … ] 팬일지도 몰라. (후략).」

(논점) 원문에서 <ダンスのファン>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팬>이라고만 번역했다. 문장 흐름으로 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략해서 번역해도 문제없이 보인다. ‘팬’이라는 말은 결국 ‘호세의 댄스 팬’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몇 줄 뒤에 두 번이나 역자는 위에서 생략한 <ダンスの>의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ダンスのファン>를 다음과 같이 <댄스 팬>이라고 번역했다.

(원문) 「ねえ、君らはボクのダンスのファンなんじゃないか?」(KYOKO, p.82)

(번역) 「그런데 당신들은 나의 댄스 팬인가?」

(원문) 「ねえ、君らはボクのダンスのファンなんじゃないか?」

(KYOKO, p.83)

(번역) 「그런데 당신들은 나의 댄스 팬인가?」

이러한 예는 역자가 원칙 없이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생략하지 않고 번역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 3. 맺음말

번역의 누락과 생략이란 문학작품의 번역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번역의 누락과 생략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역자가 말의 뜻을 몰라 번역을 할 수 없어 잘못 옮기기보다는 아예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경우,
- (2) 역자가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 (3) 역자의 부주의에 인한 누락,
- (4) 역자가 생략이 아니라 변환(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이들 중 부주의에 의한 누락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례는 (3)에 속하는 사례이지만 다른 사례는 거의 고의적인 번역의 생략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번역의 누락과 생략도 오역의 한 형태이다. 이 번역판의 역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번역상의 버릇을 갖고 있다.

- (a) 모르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비슷한 번역어로 대신 하는 적당주의.
- (b) 비슷한 단어가 나열되면 그중 하나를 생략하여 번역하는 절약주의.
- (c) 문맥상 번역을 생략해도 독자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자존주의.

(d) 번역 누락이 많은 부주의 방치주의.

그리고 여기서는 번역의 누락과 생략만을 논했지만 번역판 『교코』에는 다른 오역사례도 무척 많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작의 10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각 페이지마다 1~2군데 오역이 있다. 지면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번역의 누락과 생략 현상은 번역자의 노력으로서 얼마든지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결국, 올바른 번역이란 번역자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1. 『KYOKO』(村上龍 著, 集英社文庫, 1998. 12).
2. 『교코』(1.의 한국어판).
3. 拙文, “일본 현대소설의 오역사례”, 『번역학 연구』(제2권 2호, 2001. 가을).



[ Abstract ]

**The Mechanisms of Mistranslation in Japanese Contemporary N.novels—  
Omissions in Translations—**

Yuji Hosaka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vert omissions that occur in translation works of Japanese into Korean.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n authentic Japanese work and its Korean translation. In this study, 30 incidents of omission are found. They are analyzed into four categories, and each category considers the conditions of omissions the part of translator.

They are as follows.

- (1) Lack of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certain words
- (2) Loss of meaning emphasis of certain words
- (3) Carelessness in translation fulfillment.
- (4) Preference for simplified words that are similar in meaning

The corpus of this study includes a Japanese contemporary novel(KYOKO by Ryu Murakami, Kodan-Sya Bunko, 1998) and its Korean version of translation. The likelihood of omissions in translation is primarily summed up into four categories ;

- (a) When words are not comprehended in a section, that section is likely to be omitted.
- (b) When a few synonymous words are used within the same sentence, one of them is likely to be omitted in translation.
- (c) With the false assumption that the reader understands the meaning, a word is not even overtly translated.

(d) Carelessness in translation fulfill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on the part of translator, omissions of any linguistic unit must not be tolerated in any cases mentioned above. Furthermore, professionalism in translation must take priority in the prevention of any category of omissions in translation.

